포 르 투 갈

2003. 9.

김균태

(ktkim@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92,141㎢ (남한의 국토면적과 거의 같음)
- 인　　구: 1,010만명(2003년 7월 현재)
- 기　　후: 해양성(남부는 지중해성, 북부는 온대성 기후)
- 시 간 대: GMT와 같음

□ 행　　정

- 공식국명: 포르투갈공화국(The Portugese Republic)
- 수　　도: 리스본(Lisbon)
- 주요도시: 리스본(Lisbon), 포르투(Porto), 세투발, 브라가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Jorge Sampaio 대통령(취임일: 2001. 3. 9, 임기: 5년, 사회당)
- 수　　상: Jose Manuel Durao Barroso
  (취임일: 2002. 4. 6, 임기: 4년, 사민당)
- 의회제도: 단원제(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출)
- 주요정당: 사민당, 사회당, 국민당, 공산당

□ 사회·문화

- 민　　족: 이베리아족,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무어족 등의 혼혈
- 언　　어: 포르투갈 어
- 종　　교: 천주교(90% 이상)

□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 협정체결:
  - ㅇ 무역 협정(1977년 12월)
  - ㅇ 일반사증 면제협정(1979년 9월)
  - ㅇ 경제 산업기술협력 협정(1985년 1월)
  - ㅇ 투자보장 협정(1996년 8월)
  - ㅇ 이중과세방지협정(1997년 12월)
  - ㅇ 항공협정 가서명(2002년 2월)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구	백만명	9.98	10.00	10.01	10.03	10.05
GDP(명목)	십억 달러	112.3	115.1	106.5	110.1	122.0
1인당GDP(명목)	달러	11,259	11,515	10,631	10,975	12,141
실질GDP증가율	%	4.6	3.8	3.7	1.6	0.4
실업률	%	5.0	4.4	4.1	4.1	5.0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3	2.9	4.4	3.6
재정수지(GDP대비)	%	-2.3	-2.8	-2.8	-4.1	-2.6
수출	십억 달러	24.9	23.9	23.3	23.6	25.6
수입	십억 달러	38.7	38.6	38.2	37.1	38.4
경상수지	백만 달러	-7.8	-9.7	-11.1	-10.4	-8.9
평균환율	유로/달러	0.89	0.94	1.09	1.12	1.06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August 2003.

2. 향후 경제전망

항목	단위	2003	2004	2005
경제성장률	%	-0.4	1.6	2.6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4	2.5
실업률	%	6.8	6.5	5.9
재정수지	%, GDP대비	-2.9	-2.8	-2.4
경상수지	%, GDP대비	-5.8	-5.9	-5.6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August 2003.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교역품목(SITC 기준)	수 출		
	2001	2002	2003(1-2월)
0. 식품 및 산동물	1,110	1,160	169
1. 음료 및 담배	664	721	110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978	860	156
3. 에너지	505	536	92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124	122	20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1,474	1,568	275
6. 재료별 제조제품	6,523	6,468	1,013
7. 기계 및 운수장비	9,768	9,828	1,606
8. 기타 제조제품	6,099	5,750	996
9. 기타	77	76	12
합계	27,322	27,089	4,448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단위: 백만 유로)

교역품목(SITC 기준)	수 입		
	2001	2002	2003(1-2월)
0. 식품 및 산동물	4,479	4,129	611
1. 음료 및 담배	437	441	43
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1,498	1,418	208
3. 에너지	4,271	4,021	655
4. 동식물성유지 및 왁스	157	160	31
5. 화학물 및 관련제품	4,386	4,544	716
6. 재료별 제조제품	7,921	7,329	1,136
7. 기계 및 운수장비	16,041	13,965	2,005
8. 기타 제조제품	4,703	4,520	677
9. 기타	164	131	18
합계	44,054	40,656	6,017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백만 유로)

	2001	2002
< 수 출 >		
EU	21,893	21,576
독일	5,232	4,978
스페인	5,202	5,482
프랑스	3,450	3,419
영국	2,812	2,850
벨기에	1,463	1,231
미국	1,539	1,566
스위스	274	295
노르웨이	303	210
< 수 입 >		
EU	33,072	31,270
스페인	12,064	11,440
독일	6,072	6,091
프랑스	4,500	4,164
이탈리아	2,994	2,660
영국	2,212	2,130
미국	1,601	888
일본	815	721
노르웨이	831	476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

다. 포르투갈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해외직접투자(ODI)	785	1,903	3,847	3,170	7,674	7,898
외국인투자(FDI)	1,488	2,477	3,144	1,234	6,464	6,017

자료: United Nations.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 국별 純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 가	2000	2001
EU	3,055.6	3,671.1
스페인	2,261.8	260.1
영국	73.8	231.3
프랑스	-10.9	36.7
독일	42.8	6.4
브라질	2,679.4	1,042.3
미국	400.3	105.3
스위스	6.2	13.7
합 계	8,309.2	5,659.9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ヅエトロ貿易投資白書, 2002年版.

□ 국별 純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유로)

국 가	2000	2001
EU	6,714.1	3,328.4
스페인	2,660.2	985.2
독일	340.1	650.0
프랑스	205.7	211.9
영국	435.5	96.2
브라질	137.7	229.7
미국	-34.6	162.3
스위스	26.7	-34.2
합 계	6,998.3	3,6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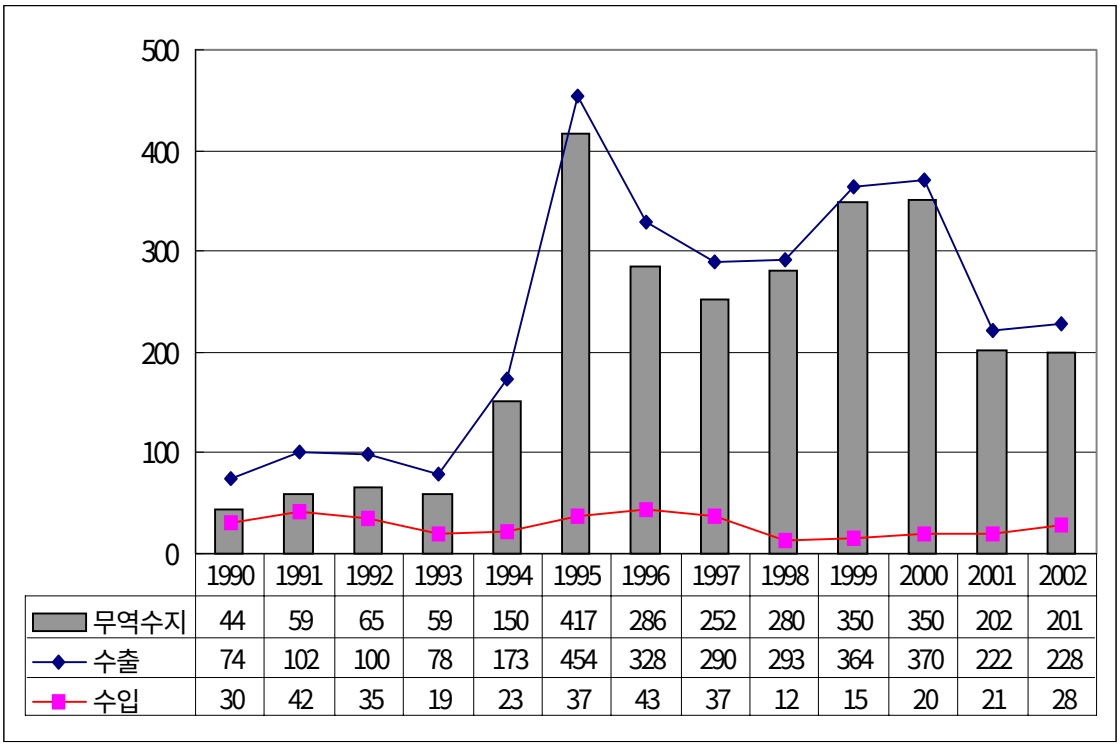
자료: 日本貿易振興會, ヅエトロ貿易投資白書, 2002年版.

4. 한·포르투갈 경제관계

가. 교역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무역수지	44	59	65	59	150	417	286	252	280	350	350	202	201
수출	74	102	100	78	173	454	328	290	293	364	370	222	228
수입	30	42	35	19	23	37	43	37	12	15	20	21	28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출 내역(HSK 2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45,208	51.0	44,997	52.1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2,541	-18.0	30,316	14.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55,114	-26.7	23,098	-26.8
고무와 그 제품	13,011	-7.9	7,944	23.3
인조장섬유	9,347	14.3	7,381	37.9
철강	6,469	-41.0	5,921	38.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243	-0.3	2,388	43.9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2,403	-51	1,660	48.9
동과 그 제품	1,280	-71.6	939	-2.0
인조단섬유	1,497	-37.9	800	-22.5
총수출	228,345	2.8	133,616	14.8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수입 내역(HSK 2단위, 금액순 상위 10품목)

(단위: 천 달러, %)

품 목	2002		2003(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418	2,837.9	5,615	3,267.9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5,386	3.5	5,143	91.2
의류와 그 부속품	1,246	6.2	1,424	188
메리야스 및 뜨개질편물의 의류	832	195.8	1,294	257.4
코르크와 그 제품	1,864	-1.1	987	-7.2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1,624	85.4	981	-2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1,198	-73.3	832	258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1,389	29.5	785	28.7
채소, 과실, 견과류	1,151	255	730	-10.8
인조단섬유	2,421	847.8	497	-61.3
총수입	27,729	34.1	22,415	48.0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한국의 對포르투갈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1~6월)		총누계 (1968~200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	5.6	0	0	0	0	0	11.2	2	15.6	7	202.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정보, 2003. 8.

□ 포르투갈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신고기준)

1999		2000		2001		2001 잔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	0	0	0	1	3.2	1	3.2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2.

III. 경제현안

1. 포르투갈의 경제현안

가. 개요

□ 1999년과 2000년 포르투갈 경제는 1976년 이후 최대 호황을 보여 실질 GDP 증가율이 각각 3.8%, 3.7%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하향세로 돌아서 2001년에는 1.6%의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음.

- 이 같은 경제성장의 둔화는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이라는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지만,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인한 소비악화와 정부의 재정적자 악화 때문임.

- 포르투갈의 2001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약 4.1%로 EU의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의 3%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EU 집행위로부터 과잉적자 시정절차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 이러한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악화는 포르투갈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음.

- 2002년에는 재정적자 비율을 -2.7%로 하락시킴으로써 안정성장협약 기준을 준수하였음. 이러한 큰 폭의 재정적자 감축은 수익창출 노력과 공공지출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였음.

□ 2002년 하반기부터 포르투갈 경제는 더욱 침체를 겪어 2002년 3/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며, 결국 2003년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3년 1/4분기와 2/4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2%, -2.3%를 기록하였음.

- 포르투갈 중앙은행(Banco de Portugal)의 Victor Constancio 총재는 7월 1일 기자회견에서 2003년 포르투갈 경제가 -0.5% 성장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리고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할 것이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쳐 본격적인 회복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음.

<포르투갈의 경제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

	1999	2000	2001	2002					2003	
				연간	Q1	Q2	Q3	Q4	Q1	Q2
실질GDP 증가율	3.8	3.7	1.6	0.4	0.0 (1.4)	1.8 (2.0)	-2.7 (-0.3)	-0.3 (-1.3)	0.1 (-1.2)	0.1 (-2.3)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August 2003.

□ 포르투갈 경제의 향후 침체 전망은 가계부채 과다로 인한 내수 급감과 세계경제 동반침체에 따른 해외수요의 부진 그리고 긴축재정정책의 부정적 여파에서 나온 것임.

- 2002년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EU가 정한 재정적자 3% 한도를 겨우 달성하였으며, 2003년에도 긴축정책 강화를 천명해 왔음.

-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기 회복을 앞당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현재로서는 정부가 공공투자 증가나 세율감면 등의 경기부양책을 운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임. 포르투갈 정부는 2002년 공공소비증가율을 긴축재정 속에서도 2.6% 증가시켰으나 금년에는 오히려 1.6% 감축시킬 계획임.

- 결국 2002년도 긴축재정정책의 부정적 여파와 세계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03년 포르투갈 경제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우울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나. 최근경제동향 및 전망

□ 2003년 1/4분기 및 2/4분기의 포르투갈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각각 0.1%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2.3% 증가하였음.

- 이는 가계소비, 정부지출,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1/4분기에 전기대비 3.3% 증가했던 수출마저도 2/4분기에는 0.6% 감소하여 포르투갈 경제의 침체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일반 가계의 높은 부채비율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업률로 인해 민간소비는 지난 2000년 2.6%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는 1.2%, 그리고 2002년에는 0.7%를 기록하였음. 2003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0.4% 감소하였고 2/4분기에 다시 0.2% 증가하였음. 따라서 2003년에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정부지출은 민간부문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자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규모를 GDP의 2.4% 수준으로 정하고, 지출을 급격히 축소하여, 2002년 3.2%에 달하던 증가율이 2003년 1/4분기, 2/4분기 각각 전기대비 -0.5%, -0.6%를 기록하고 있어, 2003년도에는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위축되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1년 0.1%, 그리고 2002년에는 -5.2%를 기록한데 이어, 2003년도

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03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2.8 증가율을 보인 후 2/4분기에 다시 0.1% 증가하였음.

□ 포르투갈은 2002년까지 EU회원국 중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보여 왔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감량경영과 일부 투자기업의 철수 등으로 실업률이 급격이 늘어나고 있음.

- 2003년 1/4분기 중 실업률은 6.4%를 기록하였으며, 2/4분기 중에도 6.2%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여, 실업인구는 총 336,000명에 달하고 있음. OECD는 2003년도 포르투갈 실업률을 6.4%로 전망함.

□ 2003년도 포르투갈의 인플레율은 당초 정부가 2~3%대로 예상했으나, 수입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2003년 6월말 현재 3.4%를 기록하고 있음.

- Global Insight 및 OECD는 국내소비 둔화로 인한 공산품 가격의 하락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의 하락 등으로 2003년도 인플레율이 3.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02년 -0.4%의 수입증가율을 보였던 포르투갈의 수입은 2003년 1~4월 현재 139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역시 같은 기간 중 89억 유로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4%나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의 위축으로 수입수요 역시 2003년 중에는 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수출입 부진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회원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 수출 및 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다. 주요경제현안 및 과제

1) 재정적자 확대 전망 가능성 문제

□ 포르투갈 정부의 2003년 재정적자 목표치인 GDP대비 2.4%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포르투갈은 이미 2001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약 4.1%를 기록함으로써 EU의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상회한 적이 있음.

- 포르투갈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세 인상(최고세율 17%에서 19% 인상)과 법인세 징수 강화, 공공부문 긴축 및 국영기업 민영화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음. 그 결과 2002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2.7%로 EU가 정한 3%한도를 겨우 달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긴축정책은 소비심리 냉각과 기업투자활동을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법인세 징수실적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됨.

- 이에 따라 민간업계는 긴축재정보다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어야 세수증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제경제기구들은 포르투갈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치 준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EU 위원회는 2003년 경제성장률을 0.5%,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5%로 예상하였음.

- IMF는 4월 9일 발표한 춘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03년 포르투갈

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0.3%로,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9%로 전망하여, 2003년에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포르투갈 정부도 2003년 5월에 금년도 2002년말에 계획했던 실질 GDP 증가율 목표치를 1.3%에서 0.25~0.75%로 하향 조정하면서 재정적자 2.4%의 목표치 준수도 사실상 포기하였음.

□ 민간업계의 지속적인 부가세 및 법인세 인하 요구와 계속되고 있는 심한 경기침체하에서 재정적자 상한선 준수를 천명한 포르투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은 상당히 좁을 수 밖에 없음.

- 포르투갈 정부는 정부소유재산 매각, 공공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나 EU의 재정적자 3% 수준을 지킬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2) 실업률 증가

□ 포르투갈은 2002년까지 EU 회원국 중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로 최근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 2003년 1/4분기 실업률 6.4%, 2/4분기는 6.2%의 실업률을 기록하여 2002년 1/4분기 4.5%와 비교할 때 최근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003년 5월 실업률은 7.0%에 달해 전년 5월의 4.7%와 비교할 때 EU국가 중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또한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로 고학력 인력들이 해외 이주를 확대하고 있어 지난 2002년도에는 전

년 대비 3.3%나 증가한 27,000명이 해외로 빠져 나갔음.

<포르투갈의 실업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4.1	4.1	5.0	6.2	6.3	6.6	6.9	7.0	7.3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August 2003.

□ 이러한 실업률 증가와 고학력 인력의 해외이주 확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음.

- 이번 조치는 주로 대학 졸업생이나 장기적으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03년 7월 30일부터 향후 18개월에 걸쳐 총 2,5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현 거주지로부터 최소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3년간에 걸쳐 매월 412유로의 주택 임차료를 받게 되며, 일시불로는 5,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ㅇ 기업체가 실업자를 파트타임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세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급여지급용으로 보조금을 받게 됨.

□ 그러나 포르투갈내 경제전문가와 Eurostat은 포르투갈의 실업률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도 초에나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포르투갈의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됨.

2. 한·포르투갈 경제현안

가. 한국·포르투갈 교역 및 투자 동향

1) 무역관계

□ 포르투갈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매년 큰 등락을 보이고 있음.

- 지난 1999년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24.5%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1.6% 소폭 증가에 그친 이후 2001년에는 무려 40.0%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2002년 들어 2.8% 소폭 증가한 후 2003년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4.8%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수입은 그 규모는 작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2년에는 34.1% 증가한 2,772만 달러를 기록하고, 2003년도 7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2,241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對포르투갈 연도별 수출입 규모>

		1999	2000	2001	2002	2003 (1~7월)
수 출	금액(U$백만)	364.4	370.2	222.2	228.3	133.6
	증가율(%)	24.5	1.6	-40.0	2.8	14.8
수 입	금액(U$백만)	14.7	20.0	20.7	27.7	22.4
	증가율(%)	21.0	35.9	3.6	34.1	48.0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이며, 2003(1~7월)의 경우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의 對포르투갈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등 차량·기계류와 무선전화기, 에어컨, 냉장고 등 전기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축전기 등의 전기기기와 보드, 의류 등임.

- 자동차 수출은 현지시장의 침체로 2002, 2003년 모두 감소하였으나, 건설중장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은 2년 연속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년도 부진을 보이던 타이어, 반도체 부품, 합성수지 등은 2003년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주요 수입품목인 파티클보드, 편직의류, 직물제 의류 등은 전년도에 이어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2) 투자관계

□ 포르투갈은 자체산업 발달이 미흡하여 세계유명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백색가전, 제약 등에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편임.

-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전기전자 관련제품에 투자진출 중이며, 對포르투갈 투자규모는 2003년 1~6월간 현지투자 2건, 약 15백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여 1968년 이후 총 투자누계(신고기준) 7건, 약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ㅇ 현지진출 한국업체는 한라공조 생산법인(자동차 에어컨 콤프레샤부품), 삼성전자 및 LG전자 판매법인 등이 있음.

- 반면, 포르투갈의 對한국 투자는 2001년 계약된 경비행기 합작투자(320만 달러, 자본재도입 방식)건이 유일한 투자임.

□ 현재 양국간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각각 1997년 12월 27일과 1996년 11월에 발효된 상태임.

나. 주요통상현안

□ 한국기업이 포르투갈 현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무역·투자 장벽에 대해 한국정부는 포르투갈 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임.

- 한국기업이 포르투갈 현지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은 쉽지만 해고절차 및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해고사유발생시에도 현지 피고용자를 임의로 해고시킬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1,670만 달러 이상의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면 당초 약속한 무상공여 자금 및 훈련비 지원 등에 매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지 기업의 자금운영 및 고용원 훈련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현지체류를 위한 거주허가서, ID카드,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고 법정시간보다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현지 파견 주재원들이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처리 절차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허가 취득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건축 인허가 관련,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지업체들이 외국업체의 현지 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어, 인허가 획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포르투갈은 EU 역내수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외국인 한국기업이 진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로 역내 수입비중이 2001년에는 포르투갈 총수입의 75.1%, 2002년에는 76.9%로 역내 수입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한국기업이 對포르투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임.

<포르투갈의 교역현황>

(단위: 억 유로)

	수 출		수 입	
	2001	2002	2001	2002
전 체	273.2	270.9	440.5	406.6
EU지역	218.9 (80.1%)	215.8 (79.6%)	330.7 **(75.1%)**	312.8 **(76.9%)**
EU지역 외	54.3 (19.9%)	55.1 (20.4%)	109.8 (24.9%)	93.8 (23.1%)

주: ( )는 비중임.

자료: Eurostat. *External and intra-European Union trade.* July 2003.